



자동차/타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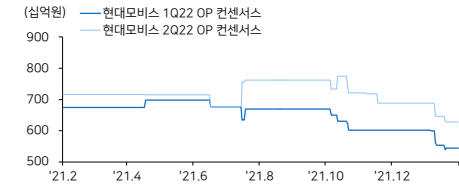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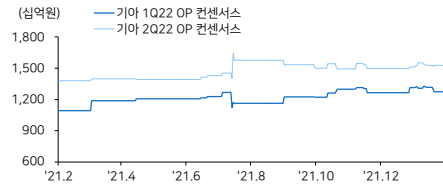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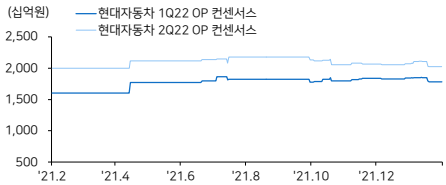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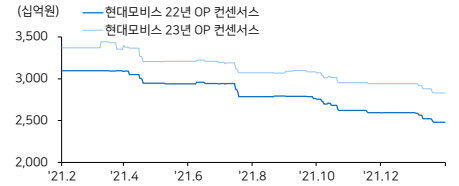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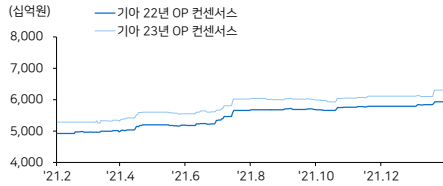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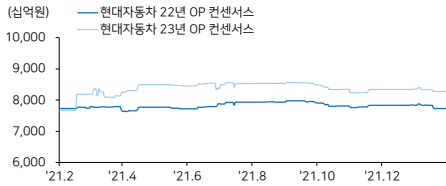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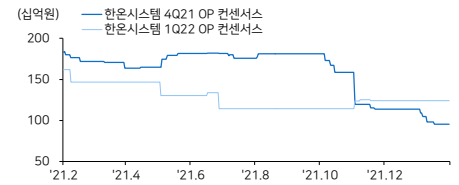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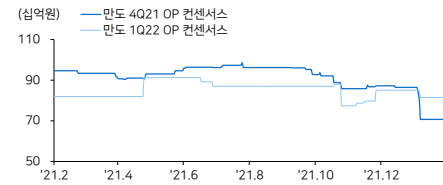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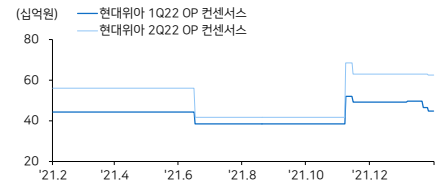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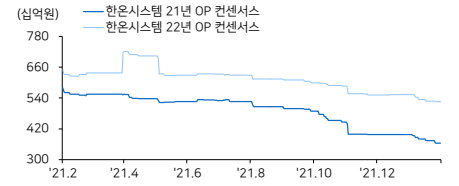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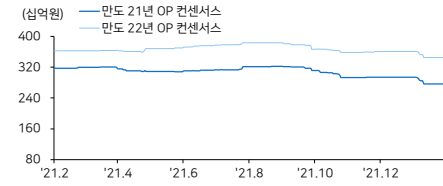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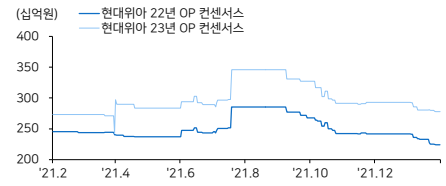
joonsung.kim@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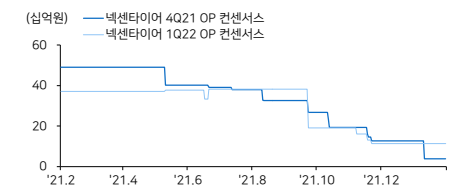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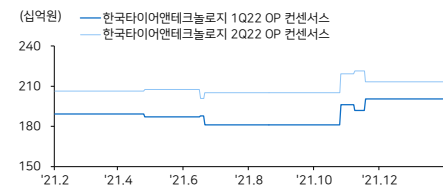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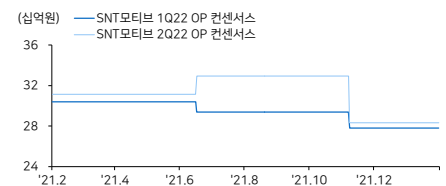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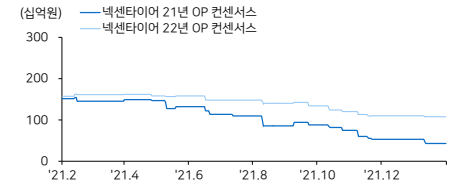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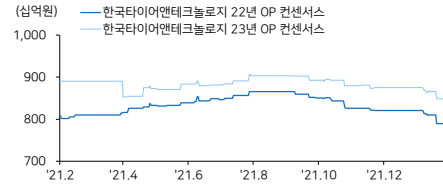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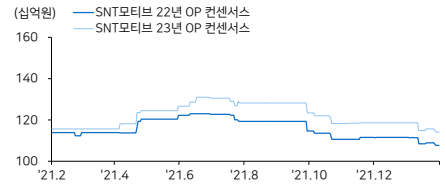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라-우크라 전운에 '실적 발목' 우려 (데일리안)

국제사회의 대러 경제제재가 러시아 권역 판매, 생산, 수익성에 전반적인 악재로 작용할 여지가 존재. 미국이 화제를 겨냥했던 '해역직접생산품규칙'이나 현재 언급 중인 '달러 결제 금지'가 러시아항으로 이루어질 경우 수출 제한과 환손실 발생 우려.

<https://bit.ly/3JQdbOe>

중국 자동차 수출 200만대 돌파...한국 턱밑까지 쫓아왔다 (한국경제)

지난해 중국 완성차 수출량은 201만 대로, 2020년 99만대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상승함. 그동안 내수 시장 기반 성장을 해온 중국 업체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중. 중국 내수 완성차 수요는 정체되어 있으나,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

<https://bit.ly/3JLFSvS>

Tesla faces day of reckoning on water supply for planned German plant (Reuters)

3월 4일 테슬라 베를린 공장의 수도공급에 관한 법원 판결이 있을 예정. 브란덴부르크 환경부가 상수도 공급업체에 부여한 라이선스에 독일 환경단체가 이익을 제기하는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테슬라 베를린공장 생산 지연 가능성이 제기됨.

<https://reut.rs/3Jyfpfy>

Tesla announces new investment in Giga Shanghai on road to 1 million EVs per year (electrek)

Tesla가 기가 상하이의 생산 확장을 위한 새로운 투자를 발표함. Tesla는 증가하는 수출 수요 충족을 위한 부품 생산 확장과, 이를 위한 인력 확충 및 교대조 주가에 관한 문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https://bit.ly/3vgSuxk>

중전기트럭, 국내에서 생산된다...'명신-지리차 협력' (이데일리)

국내 자동차부품업체 명신그룹이 중국 지리자동차와 전기차 개발 계획·제조·판매의 기본 틀에 합의하는 협약을 맺음. 명신이 인수한 한국GM 군산공장을 이용, 국내시장에 맞는 전기트럭 개발을 추진하여 '23년 6월 생산 계획 중.

<https://bit.ly/33KW8Op>

美 시카고, 2040년까지 시내버스 100% 전기차 전환 (조선비즈)

미국에서 3번째로 큰 도시 시카고가 오는 2040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할 예정. 시카고 버스는 1,800여 대 규모이며, 이를 위해 약 1,600억원의 기금을 확보, 향후 연방정부의 일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

<https://bit.ly/3BJDKC2>

Strong first year boosts Stellantis as cost challenges loom (Reuters)

Stellantis가 2021년 조정 EBIT Margin을 컨센서스(10%)를 상회하는 11.8%를 기록, 폭이 지역 Margin은 16.3%를 기록함. 올해도 두 자릿수의 EBIT Margin을 기록할 것이며 ICE와 EV 사업 분할 계획이 없다고 밝힘.

<https://reut.rs/3LZxhDQ>

Ford has no plans to spin off EV or gasoline-powered vehicle businesses (Reuters)

짐 할리 Ford CEO는 EV 또는 ICE 차량 사업을 분사할 계획이 없다고 직접 밝힘. 또한 경쟁자가 니오와 테슬라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하며, EV산업에서 수익을 내려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함.

<https://reut.rs/3h9osge>

Compliance Notice

본 조차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차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차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